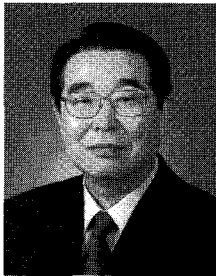


멀리 보는 힘



이 상 영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꿈과 희망 속에 맞이한 21세기 벽두 지구촌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에 의해 붕괴되고 이를 응징하고자 하는 전쟁 발발과 경기 위축으로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로 언론사 세무조사로 시끄럽더니 소위 각종 「게이트」가 꼬리를 물고 터지면서 그야말로 나라안이 별집을 쭈셔놓은 것 같은 형국이 되었다.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정부가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였고, 은행과 재벌의 신용이 추락하고, 계층간의 반목의 골이 깊어져 급기야는 IMF의 악몽에서 겨우 회복되어 가던 국내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은 올해에도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집단이기주의나 정책 표류가 우려되고,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마치 자동차로 꽉 막힌 혼잡스러운 도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정체 구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멀리 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된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정체구간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어 보지만 대개는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늦게 간다는 사실을 흔히 경험했을 것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옆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차선을 바꿔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그 차선이 막히고 있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이끌고 가는 운전자(경영자)는 눈앞의 사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 사회의 실제적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적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식 경영을 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멀리 볼 수 있는 것일까.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다.

높이 올라가는 구조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튼튼한 부하(사원)가 있어야만 경영자가 높이 설 수 있다. 따라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부하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부하를 신뢰하고 부하가 할 일을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부하 육성의 첩경이다. 믿지 못해 부하가 할 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그것이 부하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부하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의욕을 꺾음으로써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멀리 볼 수 있다.

우리가 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 성장을 구가해 오면서 몸에 밴 「빨리 빨리」 행태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끼친 공로가 컸지만 문명이 고도화되고 정보산업사회로 진입한 오늘에는 이와 같은 속도 문화는 품질이나 안전을 등한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경영자의 행동이 이러한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등 근시안적인 방침에 매달려 장기적인 대계(大計)를 놓쳐버리기 쉽다.

우리 나라 바둑계를 대표하는 이창호 9단에게 “바둑은 전쟁과 닮았기 때문에 스피드는 능률적인 것이고 느린 것은 당연히 기피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9단은 어떻게 느린 행마로 스피드를 제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9단은 “가치 있는 느낌은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가치 있는 느낌」은 세계를 제패한 이 9단의 부동심(不動心)과 여유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낸 표현인 것이다.

여유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여유는 안팎의 관계를 윤택하게 하여 조직간의 이질감을 해소해 준다. 스위스의 네슬레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로 키운 독일인 CEO 헬무트 마우서는 경영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장 중시하면서 신뢰성을 경영자의 제일 덕목으로 꼽고 이것은 언행이 일치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바쁜 중에도 항상 남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믿고 인정해 주고 침착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안정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낙관적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멀리 볼 수 있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눈앞의 변화와 어려움에 불평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변화 후의 나아진 모습을 예견하고 어려움을 이겨낸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세 되던 해에 온몸이 마비되고 위축되는 루게릭병에 걸려 5년 가량의 시한부 생을 선고 받았지만 60세가 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나는 행운아”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이론물리학을 전공해 몸뚱이가 덜 필요했다”거나 “골프나 조깅으로 시간낭비를 안해도 되어 더 좋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범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먼 우주를 꿰뚫어 본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두번째 맞이하는 해도 한 달이 지났다. 작년에 WTO에 가입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엔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일본, 구 소련의 영광을 쫓아 부활하려는 러시아 그리고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 판단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속 시원히 트이길 바라면서 멀리 보는 힘을 길러야 하겠다. ■